

제20편 - 제3신앙촌시대(제7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74회)

제20편
제3신앙촌시대(제7부)
 一. 구세주 출현에 성공한 영모님
 二. 영모님이 증거하시는 구세주는 조희성님
 三. 승리제단의 주인은 조희성님
 四. 嗚呼悲哉聖壽何短(오호비제성수하단);
 말운론
 五. 오 슬프다! 성인의 수명이 어찌 그리 짧으신가!

二. 영모님이 증거하시는 구세주는 조희성님

1) 영모님은 구세주가 조희성님이라고 증거하셨다

그토록 승리자 출현을 숨겨 증거하시던 영모님은 드디어 승리자 구세주가 조희성임을 처음으로 밝히면서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난다”고 하시며 조희성님을 증거하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웃을 수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나가 웃기지... 아들들은 다 붙들려 들어갔고, 기업은 풍가루가 되고 마귀를 쫓아 들어가 밤새도록 자지 못하고 싸우면서 피를 토하고 있고 ... 내가 웃을 일이 못되지...”

“그러나 내가 즐거움을 담아 보내줄 것이니 오늘 쏟아버리지 말고 그걸 간직하겠다는 내가 오늘 기쁨을 잔뜩 담아줘서 보내고...”

“두 달만에 의인이 되었으면 그 피의 권세가 태초의 하나님의 권세보다 높은 피의 권세니까, 피의 세력이 높은 이긴 피의 그 맨 꼬리가 그 정도가 되니까. 소사에서 그때 두 달만에 의인들이 되었으면 상당히 쎈 힘이야.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그 힘과 창조력이 무한하여 태초의 하나님보다 높고로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도 내 가치를 당할 사람이 없단 말이야.”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난다. 빨리 거기 가버만 눈물이 안나!”

“조희성이 그제 장래에 마귀새끼가 하는 장난이 아니고 자기가 미래에 계획한 것을 가리켜줘 가지고 하는데 수사관의 말에 의하면 문선명이보다 굉장하 쎈 것을 한다 이거야”(영모님 녹음설교 중에서)

영모님의 설교 녹음을 원문대로 쓰려다보니 문장이 좀 이상한 부분이 많은 점을 이해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해: 1) “내가 그렇게 웃을 수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나가 웃기지...아들들은 다 붙들려 들어가고 기업은 풍가루가 되고 마귀를 쫓아들어가 밤새도록 자지 못하고 싸우면서 피를 토하고... 내가 웃을 일이 못되지”라는 말씀이 서두에 나온다. 이 말씀은 당시 영모님의 주위 사정은 웃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환경 속에 계셨다. 영모님의 건강도 최악의 상태였다.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영모님이 기쁘게 웃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웃을 수가 있다고 하신 말씀이다. 그 도저히 웃을 수가 없는 환경 속에서 영모님이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신 웃음의 이유는 무엇이이었을까?



박태선 장로님은 승리제단의 조희성총제님을 이긴자 구세주라고 증거하셨다

주해: 2) “내가 즐거움을 잔뜩 담아 보내줄 것이니 오늘 쏟아버리지 말고 그걸 간직하겠다는 내가 오늘 기쁨을 잔뜩 담아줘서 보내고” 이 말씀은 오늘 굉장하 기쁨이 넘치는 말씀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다. 그 녹음 설교 속에는 영모님께서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난다”라고 하시는 내용이 나온다.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와 같은 표현을 쓰셨을까. 영모님에게 굉장하 기쁜 일이 계신 것이 틀림없으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쁜 일을 전교인들에게 알리시려고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고 계신 것이다. 그 기쁨이란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주해: 3) “그때 소사에서 두 달만에 의인이 되었으면 그 피의 권세가 이긴 피의 권세이므로 태초의 하나님의 권세보다 굉장하 쎈 힘이야”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소사 밀실에서 아담과 헤와가 승리하여 출현한 두 의인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광야의 외치는 소리를 시작하신 후 처음으로 영모님은 서울 원효로에 이만제단을 세우셨는데 그 이만제단도 잃어버린 아담과 헤와를 상징하는 것이다. 또 144000명의 수도 이미 설명을 하였지만 세 분 하나님의 수를 채우는 수였다(묵14장). 그러니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된 두 하나님인 아담과 헤와를 회복시켜서 세 분 하나님이 되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완성이 되어야 한다(묵3:21). 영모님의 광야의 외치는 소리는 바로 이 아담과 헤와를 찾는 사명을 말한 예언이다. 그래서 여기의 영모님의 말씀은 영모님의 사명이 무사히 끝났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 사명은 두 하나님인 아담과 헤와하나님을 말씀한 것이고 그리고 맨꼬리인 아담하나님은 태초의 하나님의 권세보다 능력이 월등히 큰 것을 알리고 계신다. 이 분이 인류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이다.

“너희들 말 안들으면 소경이와 소진이 만 데리고 미국가겠다.(81.1.3말씀)”

영모님이 말씀하신 소진이와 소경이는 영모님의 두 자녀 재매 이름이다. 영모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시다. 영모님이 다시 찾은 아담과 헤와만 데리고 미국(美國) 즉 아름다운 나라인 천국에 가신다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약조건을 말씀하신 것인데 144000의 수 즉 삼수의 하나님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다. 이 모두가 다시 찾은 아담과 헤와의 두 의인을 말씀하는 것이다.

주해: 4)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그 힘과 창조력이 무한하여 그 이긴 피의 맨꼬리가 태초의 하나님보다 높고로 내 가치를 당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다. 권세와 능력과 그 힘과 창조력이 무한하여 맨꼬리는 태초의 하나님보다 능력이 월등하다고 하셨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영모님의 말씀은

“맨꼬리라는 표현이다. 맨꼬리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글을 쓰면서 세 분의 승리자가 출현하는데 이 세 분의 승리자가 한 분에게로 합일되어 일인출하는 분이 구세주라고 누누이 설명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여기의 맨꼬리는 맨 꼬리에 출현하는 승리자를 말하는 것이다. 영모님 승리자가 첫번째요, 헤와이긴자가 두번째요, 아담이긴자가 세번째로 출현하는 분이다. 그렇다면 세번째로 출현하는 아담이긴자가 맨꼬리가 되는 것이다. 결국 세 분의 승리자가 맨꼬리인 아담이긴자에게 오시어 일체를 이루어 한 분의 구세주로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맨꼬리의 능력은 태초의 하나님보다 그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힘과 창조력이 월등하게 크다고 하신 것이다.

“기록하였으되 처음 사람 아담은 산 영혼이 되었다 하였으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신이 되었나니(고전15:45)”라는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아담이 구세주가 되는데 이 마지막 아담을 맨꼬리로 표현을 하신 것이다. 이 꼬리는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그 힘과 창조력이 무한히 나 온다고 하시면서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졌다는 사람들도 “내 가치를 당하지 못한다”고 자랑을 하신 것이다. 여기서 영모님이 “내 가치라고 표현하신 것은 당신이 감람나무 원체이기 때문에 아담과 헤와를 두 가지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꼬리 가지’는 아담이긴자 구세주를 말씀하신 것이다.*

격암유록 新 해설 제76회

한국에서 정도령을 몰라본다면 인도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에서 특별보도하리라

格菴歌辭 격암가사

悔改회개하소 悔改회개하소
 人心魔魂물러가면 雪氷寒水解結 되고
 인심마귀 설빙한수해결
 人心大道天助來 라 此堂彼堂急破 하소
 인심대도천조래 차당피당급파
 無疑東方天聖出 이라
 무의동방천성출
 若是東方無知聖 커든 英尺西人이
 약시동방무지성 영미서인
 更解聖하소 若是東西不知聖 이면
 갱해성 약시동서부지성
 更且蒼生奈且何 하오
 갱차창생내차

회개하소. 회개하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마귀가 물러가면 눈과 얼음, 찬물처럼 공평 얼어붙은 마음이 녹는 녹듯 풀어지고 사람의 마음이 영원한 생명의 대도를 받아들이면 하늘의 사람(조후)이 도와 주러 오느니라. 천조(天助)는 천조(天曹)이기도 하다. 이당 저당(예배당, 법당 등)과 이익을 따라 모인 사람들의 당(堂)을 다 깨버리고 나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동방 땅 한국에 나타난 하늘의 사람 정도령에게 와서 빌어야 하리라. 만약 동방 땅 한국에서 하늘의 성인을 몰라본다면 영국 미국 등의 서양인에게 다시 물어 성인을 알아보소. 만일 동, 서양이 같이 성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또다시 중생들은 어찌해야 하리오.

天然仙中無疑言 하니 何不東西解聖知
 천연선중무의언 허불동서해성지
 時言時言不差言 하니
 시언시언불차언
 廣濟蒼生生活人符 라 一心同力合할合字
 광제창생활인부 일심동력 합 합자
 銘心不妄 冤痛이도 죽은영혼
 명심불망 원통
 今日不明解聖 라
 금일불명해원세

하늘나라 선천인 하나님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말씀을 하시니 어찌 동서양에서 성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그 때를 아시며 하신 말씀, 말씀마다 한 치도 어긋나지 않으니 그 말씀이 바로 널리 창생을 구제하고 살리는 부적이 되니라. 말씀 중에 감로 해인이 쏟아져 나오며 이 감로 해인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다. 한 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친다는 합할 합자를 깊이 명심하여 깨달으소. 원통히도 죽은 영혼들도 오늘날 밝게 해원(解冤)하는 세상이 아니던가?

西氣東來上帝再臨 分明無疑 되오리
 서기동래상제재림 분명무의
 道神天主이러하니 英雄國사다오리라
 도신천주 영웅국
 東西一氣再生身 何人善心不和生고
 동서일기재생신 하인선심불화생
 印度佛國英米露國特別朝鮮韓라
 인도불국영미로국특별조선보

서방의 기운이 동방 땅 한국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재림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하리라. 진리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러하니 영웅국(세계열강들)에서 하나님이 계신 한국으로 다 모여 들리라. 동서 일기(東西一氣) 즉 목운과 금운이 합한 하나님의 기운으로 다시 몸을 나누시니(81공 정도령) 어느 누가 선한 마음으로 화합하지 않겠는가? 인도,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특별보도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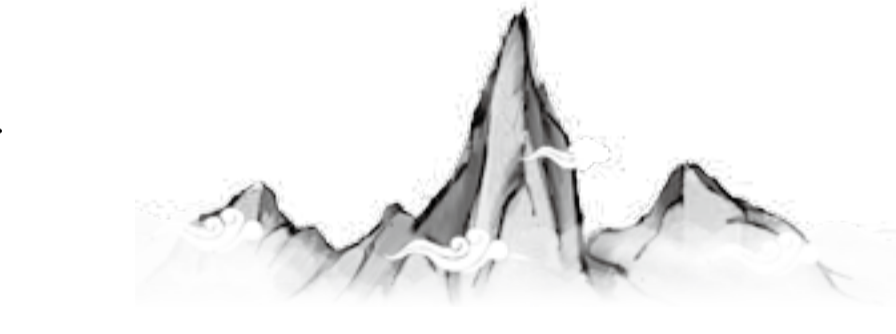
眞僧下山急破하소 佛道大昌何時望고
 진승하산급파 불도대창하시망
 都是仙中人間事 自古及今初樂大道
 도는선중인간사 자고금초초락대도
 우리朝鮮大昌인이 私心부디두지말고
 조선대창인 사심
 面村村合할合字 和氣春風時來事를
 면면촌촌합 합자 화기춘풍시래사
 無疑君子大覺年을 家家面面郡郡道道
 무의군자대각년 가가면면군군도도
 時來自知 다알리라
 시래자지

진짜 스님들은 비 진리의 범당을 한시바빠 깨뜨리고 하산하소. 세상일이 이러할진대 어느 때에 불도가 크게 변화하길 바랄 것인가? 신선이 되려 함도 다 인간사(人間事)이나라.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상 처음으로 극락(천당)갈 수 있는 무극대도

가 나왔으니 장차 크게 변창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디 사심(私心)을 두지 말고 진국의 면이면 먼, 촌이면 촌이 다 마음을 하나로 합치면 따뜻한 봄바람이 불 때가 오리라. 도를 찾는 군자들이 의심할 바 없이 정도령의 불사영생의 진리를 크게 깨닫는 때가 오게 되면 온 세상의 집집(家家)마다 면면(面)마다 군군(郡郡)마다 도도(道道)마다 모두 때가 이르러 자연히 다 알게 되리라.

天罰嚴命나릴 世上 家家人人 다시려라
 천벌엄명 세상 가가인인
 富貴文章才士더러 時來運數不通인가
 부귀문장재사 시대운수불통
 自下達上 모르고서 貧賤示知奴隸로다
 자하달상 빈천시지노예
 福音傳道急急時라 惡戰苦闘이기어서
 복음전도급급시 악전고투
 不遠千里急傳 하소 저의先聖父母靈魂
 불원천리급전 선영부모영혼
 다사사라相逢하리
 상봉

하늘이 엄한 명령으로 천벌을 내릴 즈음에는 집집마다 모든 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하느니라. 부귀한 자, 문장가, 재주 있는 선비들이 천시에 따라 오는 운수를 그리도 모르는가?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는 이치를 모르고서 가만하고 천한 자를 노여처럼 보는구나. 정도령이 펴는 영생의



진리를 시급히 전할 때이니 악전고투를 이겨내면서 천리를 말다 하지말고 급히 전하소. 저의 선영부모의 영혼이 다시 살아서도 만나리라.

貧賤困窮無勢者 빈천곤궁무세자야
 精神正心치려 海印해인알소
 무궁조화현량업네 내의先선영신명델은
 不知부지일기탄식이라 영영호걸
 현안군자 대관대자부귀자야
 도매금에너머거리
 自下하달 上上 理이치로서
 우맹자가 先來선래로다

빈천하고 곤궁하고 힘없는 자들아 정신치려 해인을 알아보소. 해인은 무궁조화가 한량없느니라. 너의 선영 신명들은 너희들이 해인을 모를까 탄식이로다. 영영호걸, 현안군자, 고관대작, 부귀자(富貴者)야! 도매금에 넘어가리라. 아래에 있는 자(힘없고 어리석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힘 있고 유식한 자)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치로서 어리석은 백성이 먼저 이 길을 찾아오느니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상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별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광고 및 구독신청**
 우 422-826 전화 032) 343-9985
 홈페이지 www.victor.or.kr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